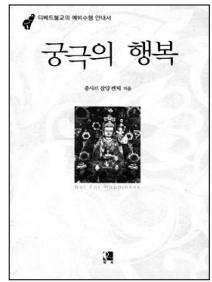


“고립된 마음서의 탈출... 최고의 무문관”

궁극의 행복

종사로 잠양한 지음 | 펴낸 펴냄 | 2만 원



티베트불교의 영적 스승이며 세계적인 영화감독이기도 한 저자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가르침에는 어느 것도 ‘핵심적’ 내용과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만약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다르마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전신마사지를 받든지, 희망을 심어 주고 인생을 긍정하는 음악을 듣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소개한다. 다르마 가르침은 우리의 기운을 북돋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다르마는 우리 허물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우리가 정말 끔찍한 기분을 느끼도록 특별히 고안된 일종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적 수행, 적어도 예비수행은 사람을 대개 가깝게 하려는 위안과 안락 같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 목표가 깨달음이라면 반드시 예비수행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수행하고자 하는 이가 수행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 먼저 행복한 상태가 정말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호화로운 생활을 애호하는 최고 유명 인사나 태평스런 지식자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에게, 다르마는 행복에 대한 당신들의 이상을 달성시키는 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에 대한 여러분의 전망이 부와 명성보다는 세간의 모든 관심과 욕망을 초월하는 데 있다면, 다르마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이 책은 불교에 완전 처음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다. 불교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해도 불법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사람들 혹은 수행하는 데 강한 열망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다. 특히나 티베트불교 전통의 금강승을 수행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다 다르마(佛法)에서 이른바 예비수행이라 불리는 많은 수행들 중에는 매우 특수한 전문 용어로 표현된 독특하고 심오한 가르침들이 포함돼 있다. 처음에는 매우 난해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때문에 수행의 끝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따라서 예비수행 수준에 맞게 처음부터 올바르게 소개된다면, 그 용어들과 거기에 내재된 아주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헌신적이고 성실한 수행자라면 그 심오

한 의미를 발견할 때까지 10년, 어쩌면 20년 동안이라도 매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용어들을 되풀이할 것이다. 예컨대 ‘보리심’이라는 말은 불교수행자들에게 친숙하다. 대부분은 이 단어가 우리 마음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선하고 친절할 생각과 연관돼 있다고 확신하지만, 사실 보리심의 진정한 의미는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날 것이다.

오늘날 수행을 위해 완전히 홀로 있는 시간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다르마의 핵심은 일상에 있다
독특한 전문용어도 수록
홀로수행, 공덕중 가장 위대

함께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이상적인 수행장소를 마련하는 건 상상조차 힘든 사치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저자는 “일상을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매일 한두 시간 정도는 철저히 혼자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수많은 공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혼자 머물러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은 세상과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다 공양 올려도 홀로 수행하는 기회를 얻을 공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윤회계의 결합과 열반의 이로움을 볼 수 있는 것도

오직 고통 속에 홀로 머물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기를 가슴깊이 간절히 갈망해야 한다.

아직은 고통한 삶을 살아갈 기회와 올바른 조건을 만들기 어렵다면, 적어도 마음을 혼란에서 떼어 놓으려 애쓰라고 저자는 갈파한다. 야구장 같은 곳에서 군중들 사이에 휩쓸려 있을 때라도 잠시나마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고통의 모든 경험 중에서 마음을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무문관이요, 최상의 고통이며, 최고의 은둔처임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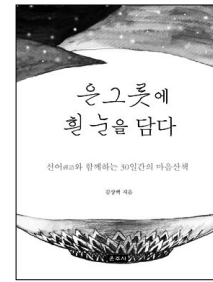
저자는 말한다. “수행을 시작할 가장 완벽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수행을 미루고자 내세우는 이런저런 좋고 나쁜 갖가지 사정은 실은 수행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일이 좀 정리되거나 로또에서 대박이 나가거나 아니면 연인이 떠나 버린 일을 좀 추스르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때를 기다려 보다지만, 인생은 한순간도 이런저런 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므로 일이 자리를 잡기를 기다리는 한 절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굴곡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을 시작할 최고의 시간입니다.”라며 주저하지 말고 바로 당장 수행을 시작하라고 당부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각자가 실참 수행 통해 공안타파 하는것이 궁극의 목적

은그릇에 힌눈을 담다

김상백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3천 원



제가 수행자인 저자가 한 달 동안 마음공부 기간을 정하고, 하루에 하나씩 화두를 들고 참구해 들어간 내용을 정리했다. 저자 자신이 수행해 가는 길을

점점하기 위해 사유하고 또 한 결과물들이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내용을 공유 내지 점점 받고, 나아가서는 뒤에 오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펴냈다고 저자는 밝힌다.

저자는 이 책에서 “나 스스로 어떤 사유체계를 갖고 화두에 접근하는지를 보고 싶었다. 물론 실참에서의 공안은 이런 사유수보다는 강력한 의심으로 시작해 의단적으로 화두를 스스로 체득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 있다. 이런 실천적 단계를 독자 역시 스스로 거치지 않는다면 이 책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한다.

저자의 고백처럼, 그는 아직 깨달음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한,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길을 걷는 중일 뿐이다. 따라서 저자가 펼쳐놓은 30개 공안에 대해, 깨달은 선지식으로서 눈앞은 명안중사의 할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중생들에게는 더 유용할 수도 있다. 어쩌면 비슷한 수준의, 혹은 한발 앞선 고민과 사유와 해결책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의 경계를 넘어 이야기를 중생들이 알아듣기란 여간해서 어렵다.

저자는 화두 하나하나에 대해 사유에 사유를 거듭한다. 때로는 여구 하나에, 때로는 공안 전체에, 때로는 공안의 주인공에 대해 등등. 여기서는 익숙한 공안뿐만 아니라, 다소 생소한 공안도 있다.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식도 세련되거나 정밀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종합으로 전개되는 저자의 사유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선가 탁 걸려드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점이 저자가 바라는 포인트이다. 바로 그때부터 책을 덮고 실참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하나의 실마리일 뿐, 결국에는 각자가 실참 수행을 통해 공안을 타파하는 것만이 수행의 궁극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선어(禪語)들은 거창하지 않다. 일상 속 의문들을 저자는 치열하게 타파한 흔적이 보인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와 같은 경우는 방거사의 일화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방거사가 초막 암자에 홀로 앉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어렵고도 어렵구나, 백 섬의 참깨를 나무 위에 펼쳐놓는 일이다.” 방 거사의 아내가 듣자마자 말했다. “쉽고도 쉽구나, 백 줄기 풀잎 끝에 조사의 뜻이로세.” 딸 영조가 말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구나, 시장하면 밥을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라고, 유복한 집안서 자란 방거사는 친구인 단하와 관리뺨는 시험을 치러가던 중 어떤 스님으로부터 “관리보다는 선불장서 부처가 되는 것이 으뜸”이라는 말을 듣고 단하와 함께 석두와 마조선사 문하로 들어가 공부해 도를 성취했다. 이후 방거사는 많은 재물을 모두 수장시켰으며, 가족들도 수행을 하도록 했다. 특히 딸 영조는 아버지인 방거사를 능가할 정도로 선적 안목이 매우 높아 후세에도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다. 책 속에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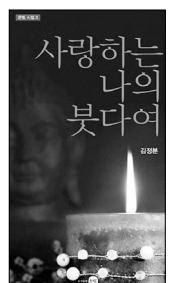
조주 스님에 대한 일화도 마지막에 소개돼 있다. 한 남승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승대사(가)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고 오직 간택을 고치면 된다’ 고 했는데 어떤 것이 간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선사는 답했다. “남의 이야기나 해대는 영무세 같은 놈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한달동안 마음공부 기간 정해
30개 공안 체험 가미해 설명
내용 함축된 삽화 윤희유

불심가득한 서정적 시어 끌어내

사랑하는 나의 붓다여

김정분 지음 | 은빛 펴냄 | 8천 원



저자 김정분은 1945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결혼 후에는 진주에서 살고 있다. 늦은 나이지만 처녀적 꿈이 아른거려 시를 쓰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월간 <문예사조>에 ‘그리움이라 말 못하고’ 외 3편의 시로 등단했다. 어릴 적부터 더불어 살아온 불가의 인연으로 불심가득한 서정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늦깎이 시인 김정분이 철수를 넘기며 펴낸 첫 시집이다. <경계> 외 68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노년의 삶을 풍부하게 할, ‘황혼기 글쓰기’의 한 성취이고, 새로운 노년 삶의 모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분 시인의 시들은 짙은 불교적 정조로, 삶과 자연, 세계와 생명에 대한 서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움 그 말 말고 더 지독한 말 없나요
 뼈마디 속 골짜기마다 빨주노초파남보
 색깔 섞여 혈관 속 타고 흘러나온 그 색깔
 보며 날발 만들고 싶어요

<그리움이라는 말> 중에서

김 시인은 그리움의 증독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움보다 더한 그리움의 말 찾아서 쓰겠다는 것이다. 그는 불교 신앙을 깊고 넓게 배양해 온 사람이므로 그의 시의 첫 자리는 마땅히 불가적 체험의 세계가 된다. 움직이는 곳에 부처가 있고 흐르는 자리에는 불심이 자리해 않는다. 어디로 가도 불계의 손바닥 안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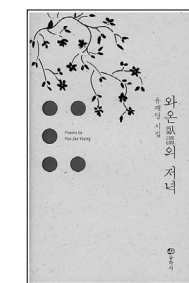
그렇다고 그의 곁에 임재한 것이 부처뿐이라는 생각은 좁게 보는 것이다. 그에게는 남다르게 산과 물, 자연을 가까이 두고 애환의 물레는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상의 고삐를 쥐고 삶의 강을 건너고 있다. 그냥 쉬엄쉬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별리의 애간장과 후식의 수레바퀴와 참회의 눈시울을 거느리고 간다.

김주일 기자

함축과 절제 그리고 섬세한 독해력

와인의 저녁

유재영 지음 | 동학사 펴냄 | 1만 원



무설전와 자벌레 한마리
 가던 길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조용히 떨어지는 나뭇잎
 일한 장
 가을 천수경
 <이순의 시간 중에서>

위 시에서 시인은 인간의 언어로 쉬이 다 가설 수 없는 그러한 느낌들, 생각의 파문들에 주목한다. 가을날, 마치 유영하듯 유유히 떨어지는 한 장의 나뭇잎은 그의 가슴에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잔잔한 파문을 불러 일으킨다. 그 파문을 통해 그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가닿기 어려운 어떤 진리 세계의 문턱을 밟은 느낌을 받게 된다.

유재영 시인의 시에서 우리는 극서정의 실체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다. 그의 시는 노숙하는 가랑이 가족, 소복한 야생오

리 발자국, 초식동물의 영혼, 옥색진꼬리 누에 집, 물장자리 그림자, 토란잎에 고인 이슬, 죽어가는 동물 턱관절 내려놓는 소리 등에 민감하다.

우리 시단의 과작 시인으로 알려질 만큼 열정성과 함축과 절제가 돋보이는 이번 시집은 등단 40년 만에 출간한 네 번째 시집이다. <고요꽃 떨어지는 소리> 이후 9년 만에 출간한 시집이라는 점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문학평론가이며 서울대 교수인 김유중은 시집 해설에서 ‘인간의 언어로 쉬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느낌, 생각의 파문’을 주목하며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시인의 지혜가 돋보이는 순간들’이라고 지적했다. ‘떨어지는 나뭇잎 한 장에서 경전의 깊이 를 읽는 감성적 공간 확보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사물에 대한 짚고도 선명 한 그의 섬세한 독해력은 많은 비평가들로부터 꾸준히 ‘한국시의 새로운 인식’으로 평가되어 왔으며, 그것은 시인 유재영만이 갖는 특별한 은유의 공간이자 내밀한 서정의 기록이다.

김주일 기자

원인 모를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

- 본인 또는 부모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

정보 홍수의 시대 - 바로 알고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준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인간의 병에 세 가지가 있으니, ①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의 문제로 생기는 병 ②전생의 업으로 인한 병 ③귀신으로 인한 병이 그것이라 했다. 이에 일광선생은 말한다. “지수화풍에 의한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나, 업으로 인한 병이나 귀신으로 인한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

- ▶ 8세 미만의 자폐증, 뇌성마비 환자
- ▶ 정신질환자(병의된 경우가 70%, 일반 질환이 30%로 추정됨)
-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시는 분
- ▶ 음식을 잘 못먹고 몸은 아픈데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없는 분
-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질병의 원인을 알고 싶은 분은 010-5040-7679 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귀신의 시대
 일광(逸廣) 지음

원인과 병의이기가 난무하는 시대-병의, 이젠 정말 제대로 알아

신국판 / 312쪽
 우리출판사 313-5047 / 9,500원

저자 일광(逸廣) 선생은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주유하면서 도(道)를 탐구해온 일광선생께서 문득 회통의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후세계가 우주 자연의 인과의 법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선생은 불치환자들의 병의 근원을 보고 병고와 생활고 등으로 평생 명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을 썼다.